

## SUPERFLEX's Perspective on the World

September, 2019 | By Editorial

page 1 of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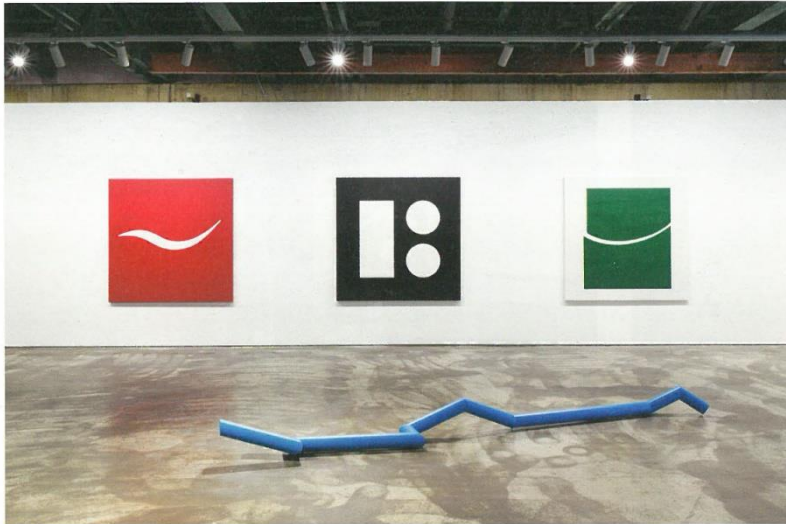


# SUPERFLEX's Perspective on the World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 solo exhibition In our dreams we have a plan installation view

Danish art collective SUPERFLEX uses art as a tool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changing world with their works and projects such as the three-seated swing set in which people need to move together to enjoy the swing; the title borrowed from the lyrics after shifting the original “I” to the plural “we”; and an attempt to apply the modern concept of open-source free software to a beer recipe. At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 seeks to visualize the invisible powers that propel our present and future.



Kulje Gallery Busan SUPERFLEX solo exhibition In our dreams we have a plan installation view

도구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다. 엔지니어에게는 공구나 기계가, 화가에게는 캔버스와 도료가, 요리사에게는 칼과 불이 도구다. 이는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연장으로서의 도구다. 도구의 또 다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킨다. 기술은 과학적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수단이자 도구이고, 그림은 화가의 세계를 펼치는 도구다. 또 요리는 요리사 자신이 고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미식을 이뤄주는 도구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쓰는 도구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 대부분 전자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 우리에게 도구란 관념이나 추상적인 의미보다 즉물성에 더 가까운 단어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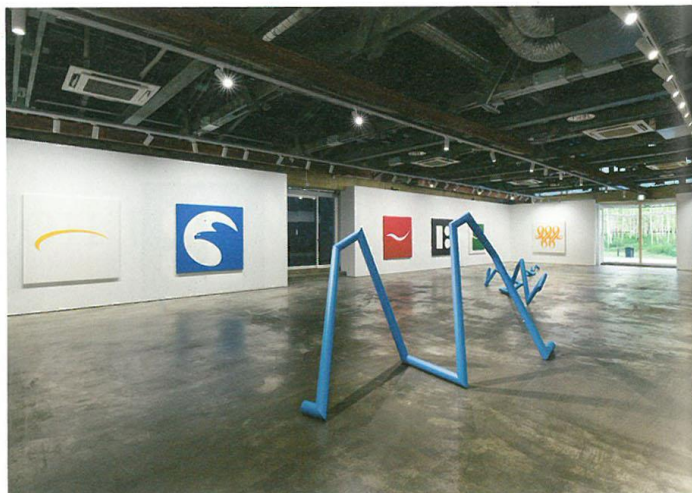
1993년 야콥 핑거Jakob Fenger와 브외른스테르네 크리스티안센Bjørnstjerne Christiansen, 라스무스 닐슨Rasmus Nielsen이 결성한 3인조 아티스트 그룹 수퍼플렉스SUPERFLEX는 자신의 작업을 '도구Tools'라고 명명한다. 영어에서 'Tool'은 연장이라는 의미가 가깝다. 이들은 자신들의 작업 자체를 도구라고 설명한다. 결국 작품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이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표 작품 중 하나가 'One Two Three Swing!'이다. 이 작품은 2017년 현대자동차와 영국 테이트모던이 함께하는 현대 커미션의 세 번째 작품으로 처음 설치한 뒤 덴마크와 독일, 스위스에 이어 다섯 번째 설치 장소

로 경기도 파주를 택했다.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네는 혼자서는 좀처럼 발을 구르며 탈 수가 없다. 세 명이 같이 발을 구르고 속도를 맞춰야 안정적인 그네 타기가 가능하다. 그네 타기라는 순수하고 일상적인 행위에서 협업의 과정과 결과를 느끼는 도구인 것이다. 현재 한국,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파주 도라산전망대에 설치돼 있다. 이 그네는 아티스트 그룹 수퍼플렉스가 제시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해법 중 하나다. 특히 도라산전망대는 개성에서 12km 떨어진 비무장지대(DMZ)의 해발 167m 언덕에 있다. 관문점과 개성공단, 개성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군사분계선 최북단이다. 분단의 상징성이 있는 이곳에 다양한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에 이들의 그네가 설치돼 있다. 분단국가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협업과 발맞춤을 바라는 정치적인 은유다.

수퍼플렉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 부산이다. 이들은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개인전을 연다. 전시 제목은 <우리도 꿈속에서는 계획이 있다In Our Dreams We Have a Plan>이다. 제목에서도 느껴지듯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에 대한 수퍼플렉스만의 고찰을 담은 전시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의 '작가 역할론'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작가란 자신의 감성을 전달하는 이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이슈화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Bankrupt Banks, SUPERFLEX  
Installation view of The Corrupt Show and Speculative Machine at Fundación  
Jumex Arte Contemporáneo, Mexico City, 2013  
Photo by SUPERFLEX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 solo exhibition  
In our dreams we have a plan installation view



Portrait of SUPERFLEX  
Photo by Luka Rone

이들이라는 지식인적인 사고가 이들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및 권력 시스템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고심했다. 이번 전시에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매개로 권력과 자본의 상징성에 대한 서사를 엮어낸다. 전시 제목 역시 스웨덴 출신 팝 그룹 아바ABBA가 1976년 발표한 '머니 머니 머니 Money Money Money'의 가사 한 소절을 차용한 것이다. 기존 가사의 '나(I)'를 '우리(We)'로 바꿔서 개인이 아닌 우리의 위기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의 해법 역시 나가 아닌 우리다. 개인 작업이 아닌 세 명이 협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협업'에 대해 질문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다. "우리에게 아티스트는 '수퍼플렉스'라는 이름의 집합체다. 그리고 우리 세 멤버는 수퍼플렉스의 종속체다. 아이디어와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움직여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인류가 마주하는 위협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우리는 컬렉티브 파워, 협업의 힘을 믿는다." 그렇다. 협업의 힘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라는 공동체 역시 가시적인 법과 암묵적인 룰, 그리고 협업을 통해 돌아간다. 이런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들의 제안이다.

수퍼플렉스의 여러 주제 중 하나는 경제 시스템과 생산 조건에 대한 고민이다. 미술 작품과 실용적인 물품 사이를 오가는 작업으로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갤러리 한쪽 벽면을 장식하는 'Bankrupt Banks'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파산을 선언하고 여타 금융 및 정부 기관에 인수된 은행들의 로고를 회화의 형태로 번안한 작업이다. 권위와 자신감을 상징하는 로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지금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 어떤 집단보다 수익과 성공에 매달리던 집단임에도 실패한,

그런 몰락한 자의 초상이다. 반대쪽 벽면에는 2008년 7월 14일 얼라이언스 앤드 레스터 Alliance and Leicester가 산탄데르 은행 Grupo Santander에 인수됐다는 사실을 시작으로, 세계 금융권의 구조 조정에 대한 전체적인 연대기가 기다란 검은색 패널 위에 정리돼 있다. 금융 위기로 촉발된 몰락과 죽음을 기리는 일종의 묘비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칙성을 시각화한 또 다른 작업인 'Connect With Me'는 동시대 가장 논쟁적인 화폐 종류인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변동을 보여준다. 최고가가 기록된 18개월의 기간을 포착해 그 사이 급변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조각으로 시각화했다.

수퍼플렉스가 글로벌 금융 위기나 비트코인 등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다.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도 별다른 고민 없이 향하던 선진 금융에 대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믿음,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근본 원인에 대한 탐색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욕망이 시스템으로 인해 종결을 맞고 급변하는 상황을 협업을 통해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퍼플렉스가 전시의 일환으로 복합 문화 공간 F1963 내에 선보인 맥주 'Free Beer'가 그렇다. '무료'가 아닌 '자유Freedom'의 뜻을 품은 'Free Beer'는 무료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의 개념을 전통적인 실물 상품에 적용한 프로젝트다. 누구나 레시피를 따르거나 변형해 자신만의 'Free Beer'를 만들 수 있는 것. 이를 통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퍼플렉스의 협업이자 작품, 도구다. **N**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 solo exhibition  
In our dreams we have a plan installation view



The title of the exhibition <In Our Dreams We Have a Plan> is borrowed from the lyrics of ABBA's 'Money, Money, Money' (released in 1976) after shifting the original "I" to the plural "we", which hints at the current crisis that we are facing as humankind, not as individuals.